

나운2동,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환경개선 구슬땀

사례관리 대상자 선정, 해충 방역·쓰레기 수거 등

이정훈 기자 / 2026-04-02 14:32:48



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구임대아파트 내 취약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‘내부 주거환경 개선사업’을 실시했다.

이번 사업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위기가구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신속히 선정하고 지원에 착수했다.

각 기관별로는 ▲행정복지센터의 통합사례관리 지원 ▲관리소 및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의 폐기물 수거 및 시설 유지보수 ▲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▲나운2동 부녀회의 노력봉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.

첫날에는 해충 방역과 폐기물 정리 작업을 진행했으며, 둘째 날에는 벽지와 장판에 쌓인 오염을 제거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이 이뤄졌다.

이정훈 기자 (iqtop@naver.com)